

2022 세계한국어한마당 (한국프레스센터) - 한국텍스트언어학회

‘쉬운 언어’로 소통하기

Kommunikation in Leichter Sprache

2022. 10. 6.

조원형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목차

01 언어의 장벽들

‘쉬운 언어’가 필요한 이유

02 쉬운 언어‘들’

‘쉬운 언어’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종류로 연구하고 개발해야 하는 이유

03 Omnibus omnia - 모든 이에게 모든 것

텍스트 종류별, 의사소통 유형별 ‘쉬운 언어’를 개발하고 활용하기 위해 생각해야 할 것들

04 손에 손 잡고 벽을 넘어서

장벽 없는 언어생활의 오늘과 내일



1

언어의 장벽들

‘쉬운 언어’가 필요한 이유



1

언어의 장벽들

- ‘쉬운 언어’가 필요한 이유: 장벽 없는 언어생활
- ‘쉬운 언어’가 필요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는 어떤 장벽이 놓여 있는가?



1

언어의 장벽들

- 의사소통 장벽의 종류 (Rink 2019: 29-32)
 - (1) 감각 장벽 (Sinnesbarriere)
 - (2) 지식 관련 장벽 (Fachbarriere)
 - (3) 전문용어 장벽 (Fachsprachenbarriere)
 - (4) 문화 장벽 (Kulturbarriere)
 - (5) 인지 장벽 (Kognitionsbarriere)
 - (6) 언어 장벽 (Sprachbarriere)
 - (7) 매체 장벽 (Medienbarriere)



1

언어의 장벽들

- ‘쉬운 언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장벽들 (단, 다른 것들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

(1) 감각 장벽 (Sinnesbarriere)

(2) 지식 관련 장벽 (Fachbarriere)

(3) 전문용어 장벽 (Fachsprachenbarriere)

(4) 문화 장벽 (Kulturbarriere)

(5) 인지 장벽 (Kognitionsbarriere)

(6) 언어 장벽 (Sprachbarriere)

(7) 매체 장벽 (Medienbarriere)



2

쉬운 언어‘들’

‘쉬운 언어’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종류로
연구하고 개발해야 하는 이유



쉬운 언어‘들’

- 지금까지 한국에서 이루어져 온 ‘쉬운 언어’ 관련 논의는 다음과 같은 아쉬움을 남겼다.
 - (1) 독일의 ‘쉬운 언어’ 지침 등 기존 지침들을 한국어에 그대로 적용하고자 했다.
 - (2) 공문서, 문학작품(발달장애 학생 교육용) 등 일부 텍스트 종류에만 논의가 한정됐다.
 - (3) ‘쉬운 언어’가 실질적으로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
 - (4) ‘공공언어’를 보는 시각에서만 접근하고자 했다. (2부터 4까지 결국 똑같은 이야기다.)



쉬운 언어‘들’

- ‘쉬운 언어’는 한 가지 종류가 아니라 여러 종류로 개발해야 한다.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은 다음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대신할 수 있다.
 - (1) 누구에게 쉬운 언어인가? (누구를 위해 쉽게 써야 할 언어인가?)
 - (2) 어디에 필요한 언어인가? (무슨 일을 하는 데 필요한 언어인가?)
 - (3) 누구에게 어떻게 가르칠 언어인가? (‘쉬운 언어’도 가르치고 배워야 할 언어이다.)
 - (4) ‘쉬운 언어’는 정말로 쉬운 언어인가?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다.)



2

쉬운 언어‘들’

- 앞에서 이야기한 ‘언어 장벽’에 대해 여기에서 다시 생각해 보자.

첫째, ‘지식 관련 장벽’은 텍스트의 내용을 이해할 만한 지식이 부족한 것과 관련이 깊다.
‘말을 쉽게 풀어 쓰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관건이다.

그렇다면 말을 어떻게 하면 쉽게 풀어 쓸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애초에 쉽게 풀어 쓰기 힘든 텍스트는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

(예컨대 전문적인 내용을 담은 텍스트들: 의학, 법률 등)



쉬운 언어‘들’

- 앞에서 이야기한 ‘언어 장벽’에 대해 여기에서 다시 생각해 보자.

둘째, ‘인지 장벽’은 텍스트에 포함된 어휘나 구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관련이 깊다.

이는 ‘쉬운 언어’ 연구자들이 처음부터 가장 중점을 두고 연구해 온 문제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기초적인 어휘, 짧고 단순한 구문’이 필요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독일의 ‘쉬운 언어’ 지침 중 ‘부정적인 표현을 삼가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그런데 쉬운 어휘, 쉬운 구문의 난이도는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즉 어느 정도까지를 ‘쉽다고’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과연 ‘누구에게나’ 쉽다고 할 수 있는가?



쉬운 언어‘들’

- 앞에서 이야기한 ‘언어 장벽’에 대해 여기에서 다시 생각해 보자.

셋째, ‘언어 장벽’은 앞의 두 장벽과 달리 ‘낯선 언어(Fremdsprache)’, 즉 이주민의 언어와 관련된 사안이다.

아직 새로운 거주지의 언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과는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아직까지 새로운 언어를 충분히 익히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식으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인가?
이는 인지 장애나 지식 관련 장애와는 애초에 범주가 다른 문제이다.



3

Omnibus omnia - 모든 이에게 모든 것

텍스트 종류별, 의사소통 유형별 ‘쉬운 언어’를
개발하고 활용하기 위해 생각해야 할 것들



“나는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은 자유인이지만, 되도록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중략) 약한 이들을 얻으려고 약한 이들에게는 약한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모든 이에게 모든 것(omnibus omnia)이 되었습니다.” (1코린 9,19-22)

출처: 한국천주교주교회의(2005), <성경>

3

Omnibus omnia - 모든 이에게 모든 것

- ‘쉬운 언어’ 지침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개발해야 한다.

(1) 공통 지침

(2) 의사소통 영역별 / 종류별 지침

(3) 의사소통 대상별 지침



3

Omnibus omnia - 모든 이에게 모든 것

- (1) 공통 지침
 - 기존의 '쉬운 언어' 지침 및 지침 시안들(BMAS 2014, 조원형 2020a 등)은 모두 공통 지침과 관련된 것들이다.
 - 단순한 어휘, 간단하고 명료한 구문 등을 골자로 한다.
 - 글꼴 문제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던 문제다.)



3

Omnibus omnia - 모든 이에게 모든 것

- (1) 공통 지침

- ‘쉬운 언어’ 텍스트의 글꼴과 관련해서 생각해야 할 문제들

- 가. 적당한 글자 크기

- 나. 불필요한 장식이 없는 단순한 글꼴

- 다. 서로 혼동하기 쉬운 글자들 (를/롤, 흥/홍 등)

- 라. 적절한 색깔

- 마. 가로쓰기와 세로쓰기

- 바. 숫자, 문장부호, 그 밖의 각종 기호들

- 사. 한글과 로마자를 혼용해야 할 때는? (한자 혼용은 애당초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Omnibus omnia - 모든 이에게 모든 것

- (2) 의사소통 영역별 / 종류별 지침

- 교육용 텍스트

가. 사실 이것이 핵심이다.

‘쉬운 언어’를 가르치고 배워야 하며

‘쉬운 언어’로 가르치고 배워야 한다.

나. 학습자가 ‘쉬운 언어’로 글을 쓰고 소통을 할 수 있게 교육해야 한다.

이는 특히 인지 장벽과 지식 관련 장벽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단지 언어 장벽만 있는 이주민들은 궁극적으로 고급 언어를 구사해야 하므로

인지 장벽 또는 지식 관련 장벽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교재가 부적합할 수도 있다.



Omnibus omnia - 모든 이에게 모든 것

- (2) 의사소통 영역별 / 종류별 지침

- 교육용 텍스트

- 다. 무엇보다 쓰기 교재가 중요하다.

- ‘쉬운 언어’ 공통 지침에 따라 글 쓰는 법을 학습자에게 가르치고
학습자가 자기 생각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면서 의사소통에 자신감을 가지게 해야
한다.

- 라. 학습자의 개인차를 고려한 단계별 교육 텍스트를 개발해야 한다.

- 마. 문학작품 텍스트(조원형 2020b 참조)도 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Omnibus omnia - 모든 이에게 모든 것

- (2) 의사소통 영역별 / 종류별 지침
 - 공공언어 텍스트 (공지문, 각종 홍보물, 민원 서식 등)
 - 가. 기존의 ‘쉬운 언어’ 지침들은 사실상 공문서 작성용 지침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나. 일반인을 위한 문서와 ‘쉬운 언어’ 사용자를 위한 문서를 병기하는 문제 등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
 - 다. 민원 서식 등을 ‘쉬운 언어’ 사용자 대상으로 만들 때는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지, 그리고 ‘쉬운 언어’로 작성한 민원 서식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등을 입법, 사법, 행정 등 공공 영역 전반에 걸쳐 논의해야 한다.
- ‘쉬운 언어’ 지침은 단지 언어 지침만으로 완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Omnibus omnia - 모든 이에게 모든 것

- (2) 의사소통 영역별 / 종류별 지침
 - 공공언어 텍스트 (공지문, 각종 홍보물, 민원 서식 등)
라. ‘쉬운 언어’는 언어 순화와는 차원이 다른 사안이다.
공공언어 개선 관련 연구를 하는 사람들 중에는
언어 순화를 염두에 두고 순화어 위주로 ‘쉬운 표현’을 제안하는 경우가 있는데
언어 순화와 ‘쉬운 언어’는 서로 범주도 지향점도 다르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Omnibus omnia - 모든 이에게 모든 것

- (2) 의사소통 영역별 / 종류별 지침

- 의료 텍스트

- 가. ‘쉬운 언어’가 절실히 필요한 의사소통 영역인데 그동안 본격적인 연구를 하지 못했다.

- 나. 증상에 관한 용어들, 병명에 관한 용어들, 치료 방법에 관한 용어 등을
‘쉬운 언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의료인들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

- 다. 각종 의사소통 장벽을 마주한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다.
이들의 불안감을 ‘쉬운 언어’로 어떻게 덜어 줄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Omnibus omnia - 모든 이에게 모든 것

- (2) 의사소통 영역별 / 종류별 지침

- 의료 텍스트

라. ‘쉬운 언어 의료 커뮤니케이션’은 별도의 전문 영역으로 간주해도 될 정도이다.

특히 글쓰기뿐만 아니라 말하기를 ‘쉬운 언어’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연구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쉬운 언어’ 지침은 주로 글쓰기와 관련된 사안만 다루어 왔다.



3

Omnibus omnia - 모든 이에게 모든 것

- (2) 의사소통 영역별 / 종류별 지침
 - 이 밖의 여러 의사소통 영역에서도 ‘쉬운 언어’의 요건에 맞게 텍스트를 작성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쉬운 언어’ 지침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



3

Omnibus omnia - 모든 이에게 모든 것

- (3) 의사소통 대상별 지침
 -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의사소통 장벽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리고 같은 부류의 장벽이라도 개인차에 따라
장벽의 높이와 두께가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
 -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위한 ‘쉬운 언어’인지를 고려해서
의사소통 대상별로 지침을 세분화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Omnibus omnia - 모든 이에게 모든 것

- (3) 의사소통 대상별 지침
 - 즉, 각 장벽의 특성에 맞는 ‘쉬운 언어’ 텍스트를 개발하고 활용해야 한다.
여러 장벽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특성들을 공통 지침에 반영하고
인지 장벽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텍스트,
지식 관련 장벽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텍스트 등을 개발해야 한다.
 - 언어 장벽과 관련된 ‘쉬운 언어’ 지침은 외국어 교육 분야와도 적극적으로 협업해서
합리적으로 마련하고 다듬어 나갈 필요가 있다.



Omnibus omnia - 모든 이에게 모든 것

- (3) 의사소통 대상별 지침

- 인지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단순한 표현’으로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지식 관련 장벽이나 언어 장벽도 기본적으로는 인지 장벽이 바탕에 깔려 있는 만큼 단순한 표현은 모든 유형과 종류의 ‘쉬운 언어’가 공통적으로 지향해야 하는 목표다.
- 다만 그 ‘단순함’과 ‘쉬움’의 정도는 장벽의 종류와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를 세밀하게 구분하고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4

손에 손 잡고 벽을 넘어서

장벽 없는 언어생활의 오늘과 내일



“Hand in hand we can start to understand,
Breaking down the walls that come between us
For all time”

- Koreana <Hand in Hand> (1988 서울올림픽 주제곡)

4

손에 손 잡고 벽을 넘어서

- 당신과 나 사이에 벽이 있었습니다.
- 그래서 우리는 손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 우리는 벽을 없앴습니다.
- 이제 우리는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우리는 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본 노래 가사를 ‘쉬운 언어’로 번역한 것. 더 쉬운 표현도 있을 수 있다.)



손에 손 잡고 벽을 넘어서

-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매체로 이런 식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것인가?
 - ‘쉬운 언어’를 누구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그리고 누가 배울 것인가?
 - ‘쉬운 언어’를 상용하는 사람과 그러지 않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 공존할 수 있을 것인가?
즉, ‘장벽 없는 언어생활’을 무리 없이 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이 문제 앞에서 ‘쉬운 언어’는 ‘해결책’이라기보다 ‘해결의 실마리’에 가까울 것이다.
- 이 모든 것이 ‘쉬운 언어’의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 오늘 함께 생각해야 할 문제들이다.



감사합니다

〈참고문헌〉 (본문에 언급된 것만 수록했습니다.)

조원형(2020a), “텍스트언어학에 기반한 ‘쉬운 언어’ 텍스트 구성 시안”, 텍스트언어학 48, 207-232.

조원형(2020b), “‘쉬운 언어’ 문학의 가능성 모색 - <읽기 쉬운 한국 단편소설>에 관한 소고 -”, 텍스트언어학 49, 253-274.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BMAS)(2014), Leichte Sprache: ein Ratgeber,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Rink, Isabel(2019), “Kommunikationsbarrieren”, in: Christian Maaß und Isabel Rink(Hg.) (2019), *Handbuch Barrierefreie Kommunikation*, Frank & Timme.



2022 세계한국어 한마당

World Convention of the Korean Language

2022 국제 학술 대회

2022. 10. 6.(목) - 7.(금)

한국프레스센터

 한국어·한글 미래를 펼치다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재단
국립국어원

주관 |  한국문화원연합회